

모두의 명절 특별한 심포

명절 연휴가 길어질수록 '무엇을 하며 보낼까' 하는 고민도 깊어진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문화기관이 마련한 다양한 행사가 연휴에 특별한 심포가 돼준다. 공연과 체험,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나들이'로 명절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어린이 연극 '어둠시니'

ACC·ACC재단·도립국악단
연극 '어둠시니'·무용 '1℃'
국악 실내악·전통춤·민요부터
세계 놀이문화 체험 까지 다채

'설날은 ACC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ACC)은 이번 설 연휴 유튜브 채널에서 '설날은 ACC와 함께' (14·18일)를 운영한다.

상영 작품은 어린이 연극 '어둠시니', 기후 위기를 사유하게 하는 무용 '1℃'.

먼저 한국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어둠시니'는 지난 2024년 '서울어린이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할 만큼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2023 ACC 어린이·청소년 창작자 공연'으로 제작됐다.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존재 가능한 한국 전통 오페라 '어둠시니'와 세상이 싫어 잠적한 인간 아이가 상처를 보듬으며 존재의 가치를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둠지만 따스한 여정은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있고 지내는 존재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한다.

또한 202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인 '1℃'는 '예술은 기후 위기 앞에서 행동을 촉발할 수 있는가?'라는 목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2025 ACC 국제협력 공연'으로 선보이는 무용으로 안무가 허성임의 안무 작품이다. 지난 2025년 10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을 했으며, 이후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 등 영국 3개 극장 초청 공연을 성공리에 가졌다.

관객들은 기후 위기가 벌어지는 현실 속으로 초대된다. 표제가 말해주듯 단 1℃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작품이다. 온도 변화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적인 상황을 역동적인 동작, 섬세한 조명, 음악 등으로 구현했다. 기후 위기라는 무거운 주제는 관객들에게 '모든 작은 몸짓이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전이된다.

ACC재단 '전통놀이 체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ACC재단)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 '설 맞이 전통놀이 체험'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 ACC를 찾는 어린이들은 우리 전통놀이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놀이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체험은 한국 전통놀이 5종과 해외 전통놀이 3종으로 구성됐다. 한국 놀이로는 명절하면 생각나는 '숫놀이'를 비롯해 땅에 그린 칸을 규칙에 따라 뛰어넘는 '사방치기', 딱지를 쳐 상대 딱지를 뒤집는 '딱지치기', 일정한 거리에서 화살 모형을 통해 던지는 '투호놀이', 제기(제기)를 차며 횡수를 겨루는 '제기차기' 등이 준비된다.

아시아 전통놀이도 만날 수 있다. 일본의 '와나게'는 고리를 던져 막대에 걸리게 하는 놀이로 익숙한 고리던지기과 비슷한 방식이다. 태국의 '던끼라'는 코코넛에 줄을 연결해 신발처럼 올라타 걷는 놀이이며, 중국의 '번제기'는 면으로 만든 제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던지고 차는 놀이다. 전통놀이 체험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전시 '판타지 인벤토리'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3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어린이문화원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년의 기억을 되짚고, 미래의 기억을 상상하는 개인형 전시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이야기 흐름을 따라 물건과 기억을 교환하며 자신만의 '환상의 수납장'에 미래 기억을 모으게 된다. 전시장 내 퀘스트를 수행하면 행운의 아이템도 얻을 수 있다.

ACC재단은 한복 또는 아시아 전통의상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판타지 인벤토리'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립국악단

전남도립국악단(조용안 예술감독·도립국악단)이 매주 토요일 선보이는 토요일국악희 '그린국악'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흥 넘치는 전통공연을 감상하며 새해의 합찬 기운을 얻어보는 것도 좋겠다.

공연은 오는 14일 오후 4시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지나온 겨울에 답하다'. 국악 실내악과 전통춤, 민요, 창곡, 사물놀이 등 남도 연희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한 자리에서 펼쳐 보인다.

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김백택 작곡의 국악 실내악 '겨울에게다'. '겨울에 듣는 따뜻한 음악'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차가운 계절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스며드는 온기를 담았다.

이어 완도 금강도 우도 농악의 버구놀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서한우류 버구춤'과 남도민요 '널뛰기', '동백타령' 등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가락을 더한다. 삼학도 전설을 바탕으로 한 도립국악단 정기공연 '삼학도 연가' 가운데 일부를 무대화한 춤극 '학이여 사랑이여' (구성 김기화)도 만나볼 수 있다.

판소리 '흥보가' 중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은 단막 창곡으로 꾸며진다. 마당쇠가 심술보 가득한 놀보를 한바탕 골려주는 장면을 해학적으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웃음과 흥을 선사한다.

마지막은 삼도사물놀이가 장식한다. 전라도·경상도·중부 지방의 풍물가락을 엮은 앙상블로 팽과리·장구·징·북이 만들어내는 밀도 높은 리듬이 공연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료 무료.



전남도립국악단 창곡 '마당쇠 글 가르치는 대목'



'붉은 말의 해, 마패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



제기를 차며 횡수를 겨루는 '제기차기'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박물관서 다채로운 설 행사 무료로 즐겨요”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전통악기 퓨전 공연
북노리개·자개 손거울·소원키링 등 공예 체험
고대 장례문화 '흙으로 만든 널, 고요한 위엄'전
제기차기·굴렁쇠·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도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다. 설 연휴 가족, 친지들과 가까운 박물관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영암 옥아리 19호 무덤 2호 독립 출토품.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광주박물관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은 14일부터 16일까지 '2026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을 연다. 도자문화관,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실 등 박물관 일원.

이번 행사는 특별공연과 참여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14일(토) 대강당 무대에는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가 관객들을 맞는다. 친숙한 이야기와 생동감 있는 무대는 박물관을 찾은 이들에게 뮤지컬의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는 '붉은 말의 해, 마패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이 예정돼 있다. 마패 모양의 석고방향제를 꾸미고 완성하는 체험이며 하루 200명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

또한 도자문화관에서는 1인 1회 참여 가능한 '멀티스탬프' 이벤트가 진행된다. 도자문화관 전시 관람 사진을 인증하면 참여해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최홍선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설 연휴를 알차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개로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문화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역사민속박물관서 즐기는 전통체험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2026 설맞이 한마당' 행사를 펼친다.

세시풍속을 모티브로 공예체험, 전통악기 퓨전 공연 등을 통해 명절 분위기를 돋운다. 가야금, 대금 등 전통 악기의 선율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퓨전 국악 공연과 국악 오리지널사운드트랙 매들리 무대가 예정돼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다. 북 노리개, 자개 손거울, 소원키링 만들기 등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은 공예 작품을 만들면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나눔 행사가 열린다. 14·18일. 야외마당에서 투호,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

영산강 유역의 고대 문화가 응결된 국립나주박물관에서도 설 명절을 맞아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다.

박물관은 14일부터 18일까지 박물관 정원에서 '설맞이 문화체험'을 진행한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 가능하다. 투호를 비롯해 제기차기, 굴렁쇠, 팽이치기 등 체험이 가능하다.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화는 장례 풍습이다. 독립무덤은 영산강 고대 사람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로, 영산강 유역에서는 독립 외에도 내부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됐다. '흙으로 만든 널, 고요한 위엄'을 통해 고대 사람들의 장례문화와 일대 고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